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12월 호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호리 순로(堀 俊郎)

지난 달 JICA 연수로 오이타현을 방문한 탄자니아 지방정부장 등 20명이 부지사를 예방하였으며, 4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와 관련하여 연수생 OB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몽골의 바잉홍거르에서 현 종합 생협의 기부 등으로 지어진 학교 학생 15명이 오이타현을 방문하였으며, 이어 베트남의 뚜옌광성과 관닌성의 대표단이 방문해주시는 등 세계 각지에서 오이타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오이타 유학생 비즈니스 센터」 오픈

오이타현내 유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 「오이타 유학생 비즈니스 센터」가 벵푸시의 APU PLAZA OITA 2층에 오픈하여, 11월 5일 기념식과 강연회, 교류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센터 내에 창업지원실과 부스 자리 10석을 마련하여 유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제 1차 모집에서 메디컬 투어리즘 회사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오이타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주가 정해졌습니다. 취업 지원으로는 정기적인 취업상담회 및 기업과 유학생과의 교류회, 기업 견학 등을 실시하여 현내 기업과 유학생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하며, 인턴십 및 채용으로 이어나가하고자 합니다. 오이타 유학생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오이타에 머물며 오이타현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하여 활약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내 유학생이 CM을 제작하였습니다!



오이타현에서 하는 4개의 테마 여행
과연 그 테마 여행은 4명의 이야기일까요?
재미있는 스토리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s://youtu.be/CwUHqE8MmL0> (영어 자막)



졸업식 날, 유학생들이 모여 4년 간의 추억을 되돌아
봅니다. 한 학생이 최근에 다녀온 여행을 떠올리며
시작된 추억 이야기가 시간을 거스르며 펼쳐집니다.

<https://youtu.be/aox3Mij-ms> (영어 자막)



2014년~2016년 제작 전 작품 감상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SfYw6nGjo9jcC4C6LQaTKg/videos>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12월 호

오이타 100% 즐기기! 다케타시의 대나무 등롱 축제 「치쿠라쿠」

올해로 17회 째를 맞이한 다케타 대나무 등롱 축제 ‘치쿠라쿠’는 매년 11월 셋째 주 금요일 3일에 걸쳐 열리는 다케타시의 대표적인 가을 이벤트입니다.

대나무 등롱은 해기 지기 시작할 즈음에 점등을 하기 때문에, 17시가 넘어서 사전에 챙겨둔 치쿠라쿠 안내 지도를 들고 코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던 ‘십육나한(十六羅漢)’입니다. 치쿠라쿠의 메인이기도 한 이 곳은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와 함께 수 천개의 대나무 등롱이 한쪽의 그림과 같아 보고만 있어도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두근거림을 안고 다시 발걸음을 옮겨 건다보니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곳곳에서는 음악 이벤트도 개최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신사로 이어지는 돌계단도 대나무 등롱이 가득 메우며, 불빛들이 마치 하늘과 이어져있는 듯한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안내 지도에 숨은 인기 명소로 소개된 동굴 예배당은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 예배를 드린 곳으로 대나무 등롱과 촛불들이 더해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무사거리에도 수많은 대나무 등롱이 어두운 길목을 환하게 밝히고 있고, 눈으로 카메라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담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대나무등롱의 불빛들이 성하마을 전체를 따듯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12월 호

오이타 100% 즐기기! 오카성터 단풍놀이



오카성은 해발 325m 높이에 지어진 성으로, 현재는 성벽과 성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으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관광지 오카성터로서 자리잡았습니다.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지불하면 입장권과 함께 두루마리를 받게 되는데, 펼쳐 보니 오카성의 역사와 지도가 그려져있었습니다. 일반 팸플릿과는 다르게 하나의 기념품으로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색다른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 지금 시기에는 단풍놀이를 목적으로 오카성터를 찾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높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멀리 보이는 구쥬연산과 소보산 등이 그림같은 장관을 이루며 많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가 오카성터의 단풍을 즐기기 딱 좋은 시기로, 울긋불긋 물든 단풍나무와 성벽이 어우러지며 멋진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이기 긴 성벽을 보고있으니 기계도 없던 그 당시 사람들

들은 어떻게 이 큰 돌을 쌓아 올렸는지 상상만해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산 위라는 입지와 절벽과 이어져있는 높은 성벽은 과연 이 곳이 왜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렸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니노마루(둘째 성곽) 터에는 유명한 작곡가였던 타키 렌타로의 동상이 있는데, 타키 렌타로는 오카성터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 '황성의 달'이라는 가곡을 작곡하였으며, 그 곡은 교과서에도 실릴만큼 사랑받는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슬픈 곡조가 성터만 남아 있는 허전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 이 곡의 배경으로 오카성터가 더욱 유명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카성터는 특히 봄에 만개하는 벚꽃나무가 아름다워 '일본 벚꽃 명소 100선'에도 선정되었으며,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들로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합니다.

입장료 : 고교생 이상 300엔, 중학생 이하 150엔 / 입장 가능 시간 : 9시~17시



대나무등롱 축제 '치쿠라쿠'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불빛의 향연이었습니다. 오이타로 돌아가는 기차 시간이 촉박해서 여유롭게 즐기지 못한 점이 아쉬웠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름다운 오카성터와 '치쿠라쿠'를 통해 다케타시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국제교류원 김진아